부모에 감사하며 자신답게 살기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교는 현실의 삶에 있어 인연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 윤회를 인정한다. 그렇다 보니 우리 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연법을 통해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윤회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한 찰나로 인식하여 수행과 기도를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가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에 대한 인연과 윤회의 관점을 넘어,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한 부모와 가족, 그리고 그들과의 인연 또한 인연과 윤회의 관점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효(孝) 사상이다. 불교는 과거로부터 출가라는 표현으로 인해 부모와 가족을 등지고 세속을 떠나 외로운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출가자를 조상과 부모를 등진 존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에서 효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며 수행의 토대이다.

'나'라고 할 수 있는 영원불변한 존재인 아트만을 부정하는 불교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며 많은 은혜를 받게 해 준 부모야말로 무아의 자신에게서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영원불변한 아트만적 존재라면 태어난 순간부터 많은 것이 어떠한 힘(업력)에 의해 결정돼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나약한 어린 존재를 부모는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전해 주며 길러 주신다. 그리

불교에서 효는 수행의 토대
대표 의례 백중과 우란분절
부모 인식, 삶의 토대가 돼

고 그렇게 길러진 우리는 점차 성장을 하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신만의 인생 속에서 여러 인연들과 다시금 관계를 맺으며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갖추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시작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부모에 의해 드디어 참된 자신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효 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의례가 바로 백중과 우란분절이다. 먼저 떠나보낸 부모와 인연들의 원만한 윤회와 왕생극락을 빌며, 지금 남겨져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들에 의해 이렇게 지낼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는 불교적 효의 의례인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그 백중과 우란분절이 윤달에 의해 9월에 있게 됐고,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도 곧이어 10월에 이어지게 되며 부모와 인연들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기원은 바로 부모다. 그 기원으로부터 우리가 생겨나고, 그 기원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 기원을 바로 알고, 그것에 의지하여 지금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단단한 토대 위에 자신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기원은 시작이다. 우리의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단 하나도 아낌없이 전해 주신 우리의 부모에게 감사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교적 효의 올바른 실천일 것이다. 그리고 그 효의 실천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져 그들과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며, 언젠가 떠나갈 우리에게도 그 인연의 불법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적으로 효를 닦는 것이다.

이 가을의 시작에 우리를 있게 해 주신 부모님을 기리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인연들에 감사함을 가지며 눈부신 가을의 햇살 속에서 풍요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자.

유리창에 자비심을 입히자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쿵!

묵직한 무언가가 부딪치는 소리였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삼면이 통창으로 된 다실에서 고즈넉한 주위 풍광을 즐기며 차를 마시던 와중이었다. 창가로 달려가 내다보니 쇠박새 한 마리가 두 다리를 하늘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얼른 밖으로 나가 새를 집어 두 손으로 감쌌다. 부딪쳐 기절한 새를 따뜻하게 감싸 주면 새가 정신을 차린다고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기억이 났다.

그러나 두 눈을 감은 채 비대칭으로 뻗은 다리에는 어떤 미동도 느껴지질 않았다. 체온으론 역부족인 듯해 유리창 너머에 있는 동료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새끼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쇠박새 부리에 적셔 줬다. 그러자 부리를 벌리더니 받아먹기 시작했다.

흘려 넣어 주는 물을 잘 받아먹더니 어느 결에 감고 있던 눈을 살그머니 떴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을 코앞에서 마주했다.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 싶은 마음이 그제야 들었다. 새는 눈을 뜨고도 연신 물을 받아먹더니 내 손바닥에 똥을 찍 눈다. 잠시 뒤 꿈틀대는 힘이 손바닥에 전해지고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가 점차 커지는가 싶더니 순간 새는 손을 떠나 버렸다. 그리고는 다실 건너편에 있는 소나무 높은 가지 위로 날아가 앉았다. 그

하루 2만 마리 창 부딪혀 목숨 잃어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로 충돌 줄어
모든 생명 위한 작은 실천 이어지길

런데 어쩐 일인지 쇠박새는 그곳에서 아주 한참을 붙박이처럼 앉아만 있었다. 동료들과 이야기에 잠시 빠져들다 어느결에 다시 쳐다봤을 때 빈 가지가 보였다. 대략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부딪친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지 싶다. 타고난 천수를 누리며 숲에서 잘 생활하길 빌었다.

그런데 빌어 주는 마음만으로는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막을 수 없다. 통창이 있는 한 언제든 어떤 새든 또 와서 부딪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

쇠박새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을 때 무게가 거의 느껴지질 않아 놀랐다. 10g 안팎의 무게니 그럴 수밖에. 그런데 이토록 가벼운 새가 그렇게 묵직한 충격음을 냈다는 게 믿기 어려웠다. 마침 도움을 줄 사람이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뼈는 온전했기에 쇠박새는 운 좋게 살아날 수 있었다. 유리창은 투명해서 새들이 힘껏 날다가 속절없이 부딪치고 만다. 부딪친 충격에 목이나 뼈가 바스러지면서 목숨을 잃는 새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2만 마리, 일 년이면 팔백만 마리에 이른다. 다행스럽게도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만 부착해도 충돌은 확연히 줄어든다.

멋진 풍광을 즐기고픈 마음에 통창을 달았을 뿐이다. 문제는 투명한 까닭에 유리창이 새들에겐 끔찍한 덫이 된다는 사실이다. 예불 시간에 사물을 두드리는 의식은 불교가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뭍에 사는 생명뿐 아니라 물속 생명을 상징하는 목어, 창공을 가르는 날짐승을 상징하는 운판까지 삼라만상 어느 곳에서든 모든 생명의 해탈을 바라는 마음의 발현이다. 운판을 두드리는 자비심이 산사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社 說

교육은 도구 아닌 미래의 희망
공공성 확립에 불교계 적극 나서야

학교는 미래 세대를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신성한 배움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 본령을 벗어나 학생들에게 종교적·정치적 편향을 주입하는 '선교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특정 교단의 극단적 교리와 극우적 정치사상을 가르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의 공공성 훼손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설립한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는 "대안학교 설립으로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집회까지 주도한 인물이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그의 행보는 학생 교육을 신앙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40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20여 년간 개신교계는 '1교회 1학교 운동'을 벌이며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고, 2020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 근거까지 확보했기에 가능한 수치다.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바우처 지급 등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앙이 정치를 넘어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을 특정 정치 성향으로 길러내는 '정치적 도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드러난 '리박스쿨'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서 역사교육을 표방하며 실상은 특정 정치인의 업적 미화와 기독교 교리 교육을 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교사들이 현장에 남아 있고, 일부 단체는 학생들을 특정 집회에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은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은 건강한 비판력과 다양성을 배울 권리가 있다.

불교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며, 특정 종교나 이념의 편향된 교육은 미래 세대의 시야를 좁히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불교계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고 국회와 교육부에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불교청소년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해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가 청소년 교육을 단순한 포교 활동이 아닌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적극 나설 때, 공교육은 중립성을 회복하고 청소년은 보다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9월 1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9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9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9월 1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